노정 손광은의 남도기행 시집의 민속학적 의의

나 경 수*

〈차 례〉

Ⅰ. 노정 손광은 선생의 민속 여정과 민속 사랑
Ⅱ. 노정의 시를 통해 되살아난 남도의 민속
1. 민속시를 통해서 표층문화와 심층문화의 간극 확인
2. 민속 소재의 시적 주제화를 통한 생명의 연출
3. 의성어의 탁마를 통한 생생한 민속현장의 소리 활성
Ⅲ. 민속을 빌어서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 투사

Ⅰ. 노정 손광은 선생의 민속 여정과 민속 사랑

노정 손광은 선생의 “사철가” 한가락이 구성지게 깔리면 한자리에 함께 앉은 사람들이 모두 기쁘다. 노정 선생이 부르는 “사철가”는 동향인 조상현 명창에게서 사사한 덕택인지 상당히 째가 갖춰져 있다. 그러나 소리보다 말이 더 구수하다. 여느 사람들처럼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다. 노정 선생은 “사철가” 대목대목마다 너스레도 같고, 아니리도 같은 즉흥적인 사설로 좌중을 즐겁게 한다. 비장한 “사철가”를 고아하고 약간은 골계적으로 미화하는 노정의 즉흥적 사설이 덧보태지기 때문에 노정 선

* 전남대학교 국어교육학과 교수

생을 만난 “사철가”는 노래도 살고 사설도 산다.

노정 손광은 선생이 그간 발표했던 『파도의 말』[1], 『고향 앞에 서서』[2], 『그림자의 빛깔』[3], 『내 마음 속에 눈부신 당신』[4], 『땅을 딛고 해가 뜬다』[5] 등의 시집에 실린 시들은 무엇보다도 따사롭다. 주체와 객체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반전을 통해 전편이 팽팽하게 이끌려가는 서사의 반항적이며 거부적인 태도와는 달리, 서정은 주체와 객체가 하나 되는 까닭에 마음이 따사로운 동일시의 달인들이 즐겨 쓰는 표현의 마술이다. 글은 곧 사람이며, 그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글은 어쩌면 가장 정직한 자기 고백이요 자기 현시일 수 있다. 갈등과 대립을 노정 선생의 삶 속에서 발견하기는 어렵다. 삶의 빛깔이 그랬고, 너털웃음이 일품인 까닭에 꿍한 것이 남아있을 마음 속 공간이 없을 것처럼 보인다.

2010년에 펴낸 『민속의 숨결, 신명을 풀어라』[6]라는 시집은 ‘겨레의 숨결 남도 기행’이라는 부제가 가리키듯, 남도의 구석구석에 부끄러운 듯 숨어있던 민속들을 찾아내 마치 이름표를 달아주려는 듯 하나하나 호명을 하고 있다. 이종일 전 남구문화원장이 평생 찍어온 민속 소재 사진에 일일이 시로서 화답을 하고 있다. 정지영상인 사진에 시가 더해지자 마치 동영상을 돌려보는 것처럼 꿈틀대면서 역동적인 감동을 독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정 선생의 민속 여정에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에 재직했던 동은 지춘상 선생의 영향이 컸다.

---

1) 손광은, 『파도의 말』, 서울: 현대문학사, 1972.
2) 손광은, 『고향 앞에 서서』, 서울: 문학세계사, 1996.
3) 손광은, 『그림자의 빛깔』, 광주: 시와사람사, 2001.
4) 손광은, 『내 마음 속에 눈부신 당신』, 광주: 도서출판 한림, 2006.
5) 손광은, 『땅을 딛고 해가 뜬다』, 광주: 도서출판 한림, 2007.
6) 손광은, 『민속의 숨결, 신명을 풀어라』, 광주: 도서출판 한림, 2010.

동은 선생은 남도민속학의 대부로서 추앙을 받는 분으로서 대학에 봉직했던 40여년 동안 남도민속을 조사, 정리, 연구를 해왔으며, 수많은 무형문화재를 발굴하여 국가지정 또는 시도지정을 시킨 바 있다. 노정 선생은 특히 동은 지춘상 선생과는 각별한 사이로서 국내외의 현장조사에 함께 동행하면서 민속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 바 있다. 또한 일본의 민속학자들과도 교류를 통해서 한·일간의 문화적, 학술적 교류도 활발히 했다.



일본에서 유학 중 기념촬영
(왼쪽부터 지경래, 지춘상, 손광은 교수)



일본에서 유학 중 기념촬영
(왼쪽부터 지경래, 다께다, 손광은 교수)

예를 들면 일본의 원로 민속학자인 다께다(竹田旦) 선생은 동은 지춘상 선생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지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노정 선생 역시 다께다 선생과의 친교를 두텁게 했다. 1997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노정 손광은 선생은 지춘상 선생, 다께다 선생과 함께 중국의 난주(蘭州), 가곡관(嘉峪關)을 경유하여 돈황(敦煌), 함밀(哈密), 토로반(吐魯番), 우루무치(烏魯木齊) 등을 답사하면서 실크로드 민속에 대한 이해를 심화했던 적도 있다.



실크로드 학술답사 중
(왼쪽부터 다께다, 손광은, 지춘상 교수)

민속의 이해에 많은 영감과 영향을 주었던 동은 지춘상 선생이 정년을 맞게 되자 노정은 마치 민속용어사전을 보는 것과 같은 시어들로 다음과 같은 헌시(獻詩)를 남겼다.

고향 고샅길 해어스름
고향 냄새 물씬 풍긴 당산나무 밑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로
흥겨운 소리 흐를 때마다
고싸움놀이같이
온 마을이 꽉차게 쿵덕쿵덕 나가듯
깊은 정이 꽉차게 그리울 때마다
그냥 신명에 겨워, 평생 동안
손보다도 발로 뛰어 쓰신 주옥같은 글 속에서
남도문화 넋과 얼 뿌리내려 꽃피는구나
어제의 모든 굴레를 벗어
다시 꽃이 피는구나[7]

—「꽃다발 껴안는 사랑을 바라보기」 전문

7) 동은지춘상선생정년퇴임기념논총발간위원회, 『남도민속학의 진전』, 서울: 태학사, 1998.

또 2009년 5월에 유명을 달리한 동은 선생이 전남대학교 인문대 2호관 앞에 학장취임 기념으로 식수했던 마로니에에 붙여 그의 학덕을 기리는 시를 쓰기도 했다. 이 역시 민속적 향취가 돋보인다.

햇살 밝음을 말하는구나.
東隱 學德 그늘 밝음을
오지랖도 넓게 말하는구나.
잎사귀도 넓게 하늘 닿게
가지가지 뻗어가는 걸 보면,
민속의 숨결같이 신명에 겨워
그 얼 그 넋 푸른 바람소리 같이
햇살 쏟아져 내리는구나.
우리는 모여서
서로 웃는 나무가 되는구나.

—「마로니에 마로니에」 전문

본래 보성 노동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까닭에 시골마을에 전승되어 오던 전통적인 민속에 익숙해 있기도 했지만, 많은 국악인과 한국화가는 물론 민속학자들과의 교유를 통해서 우리 문화와 민속에 대한 예술적 체감을 깊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이렇게 체감된 민속을 묵혀두지 않고 속으로 삭히고 육화시켜서 '겨레의 숨결 남도 기행'이라는 부제를 단 『민속의 숨결, 신명을 풀어라』라는 시집을 이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이러한 시집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히 정해질 일이 아니다.

"문학비평과 민속학 양자는 모두 문학이나 민속 텍스트에 있어서 의미의 파장을 낳은 복잡한 관계를 탐색하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해 왔다. 이 연구에서 나는 이들 두 현대적인 접근을 통합하는 해석 방법을

제안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방법-literary folkloristics-은 민속연행론과 탈구조주의, 그리고 독자수용론 등의 복합성(complexity)과 그들간의 유사성을 이용하는 해석상의 틀이다. 문학민속연구는, 독자나 청자가 문학 텍스트나 민속 텍스트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의미 있는 암시로서 기능을 하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또는 집단적인 전통들을 확인하는 통합적인 비평방법을 일컫는다."[8]

문학민속연구방법론은 이런 점에서 손광은의 민속지향적 속성을 가진 시들을 이해하고 의미탐색을 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남도의 민속과 시가 만나는 접점에서 생산된 일련의 형상화와 의미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속기반의 문학연구가 필요한 까닭이다.

Ⅱ. 노정의 시를 통해 되살아난 남도의 민속

1. 민속시를 통해서 표층문화와 심층문화의 간극 확인

화려하고 지배적인 표층문화와는 달리 민속문화는 안으로 숨어지내는 심층문화이다. 그래서 표층문화가 웅변처럼 과시되는 것에 반해서, 민속문화는 속삭임도 같고 귓속말과도 같다.

한국의 문화사적 성격을 통해서 우리 문화를 통시적으로 보자면 외래문화에 대한 지향과 경도가 매우 심한 편이다. 밖으로 드러난 몇 가지 예만 들어본다. 서양의 동화에 나오는 왕자와 공주가 사는 그런 서양의 궁중건축의 외양을 닮은 집들이 요즈음 눈에 띈다. 그 쓰임을 보면 어린이집, 예식장, 모텔 등이다. 이들 용도로 쓰이는 건물이 왜 서양 성채의

8) Sandra Dolby Stahl, Sandra Dolby Stahl, *Literary Folkloristics and Personal Narrativ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9, p.1.

외양을 흉내내고 있는 것일까? 모두 꿈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꿈이 있는 곳을 서양의 동화에 나옴직한 그런 공간으로 꾸며놓고 있다.

또 종교건물의 경우도 대비적 현상이 뚜렷하다. 일본이나 대만은 자기들 고유종교와 관련된 수많은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 그들 중에는 대형건물도 많다. 한국 역시 수많은, 그리고 대형의 종교건축물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비되는 것은, 한국의 경우 이들 대형건물은 모두 외래종교의 건축물이라는 사실이다.[9] 사찰과 교회도 그렇지만, 향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도 공자를 모시는 대성전을 가장 높은 곳에 자리를 잡았다.

외형만 그런 것이 아니다. 불교가 수입된 이후, 줄곧 한국사회는 외래종교가 정치적 지지를 받으면서 지배적 사상으로 자리를 차지하여 왔다. 유교, 불교, 도교 등 전통적인 종교는 물론 현대의 기독교까지를 포함해서 모두 외래종교가 지배사상의 자리를 차지하여 왔던 것이다. 그에 반해서 한국의 고유종교 또는 토속신앙은 사회적 지위가 점점 낮아지는 역사를 경험해왔다.[10]

민속은 전형적인 심층문화이다. 표층문화가 화려하고 지배적이지만 오래가지는 못한다. 불교국가에서 유교국가로 전환된 역사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추상같던 유교가 지금에 와서는 심지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이 나와 한때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였다.[11] 우리나라의 유형문화재 60% 이상이 불교문화재이다. 그만큼 지배적인 권위를 독차지해왔던 시대가 있었다. 오늘날 한국의 사상계 또는 학계가 서양

9) 나경수, "남도의 민속사회를 통해서 본 실용과 허영의 현상적 파노라마", 『실용과 성과주의시대의 민속학』, 한국민속학자대회논문집, 한국민속학술단체연합회, 2013, 165~178쪽.

10) 심지어 조선시대에 무속인은 8천의 하나로 전락했으며, 요즈음에도 대부분 사람들은 무속을 미신(迷信)이라고 치부하고 있다.

11) 김경일,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서울: 바다출판사, 1999.

학문 중심이며, 외국에 유학을 다녀온 학자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것도 외래지향 또는 외래문화경도의 한 예일 수 있다.

그러나 속삭임도 같고, 귓속말과도 같은 심층문화는 비록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간에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잡초와 같은 질긴 생명력을 가진다. 노정 손광은 선생의 시적 취향이 지극히 향수적이며, 마치 수채화의 화폭에 아껴둔 고향마을을 채워 넣듯, 잡초와 같이 무성한 질긴 생명력을 견인해왔듯 우리의 기층문화인 민속을 담고 있다. 손광은 시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보리타작"과 "직녀도"에 대한 김현승 시인의 평가가 이를 뒷받침한다.

> "보리타작", "직녀도"와 같은 눈부시게 하는 작품들을 써 놓았다. 이러한 작품들은 초기 지적 취향과는 자못 다르면서도 이 시인의 그동안의 꾸준한 노력의 결실을 갑자기 눈앞에다 보여주는 생명력있는 작품들이다. "보리타작"과 같은 일련의 작품들이 읽는 사람에게 매력을 풍겨주는 까닭은 지금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늘진 구석을 찾아내어 보여주었다는 소재의 특이성이나 토속성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작자가 시나 소설이나를 막론하고 어떤 이색적인 소재로써 작품의 가치를 자극하거나 돋보이게 하려 한다면 그것부터가 그 작품가치의 한계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문학의 가치는 결코 그 소재 자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소재에다 작자 자신의 혼을 주입하는 강도와 열도의 여하가 그 가치를 좌우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시인이 새로이 추구하고 있는 근년의 작품들에는 이 시인의 잡초와 같은 질긴 생명력이 줄기차게 꿈틀거리고 있다. 이 개인의 생명력의 총화, 그것이 곧 다름 아닌 민족의 생명력이라 할 수 있다.[12]

한 시인의 시를 통해서 시인 자신의 질긴 생명력에 그치지 않고 민족의 생명력을 읽어낸 다형 김현승의 통찰이 놀랍다. 첫 시집인 『파도의

12) 김현승, "서문", 손광은, 『파도의 말』.

말』이 나온 다음, 거의 4반세기만에 나온 두 번째 시집의 제목이 『고향 앞에 서서』였다. 신화의 힘이 태초로의 회귀 또는 모태로의 회귀에서 비롯된다고 한다면,[13] 시인의 힘은 고향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동력이 떨어졌다 싶은 시기에 노정은 시적 모태가 되었던 고향을 찾아나섰던 것이다.

보성 소리, 보성 소리
그 소리 바디 다시 피어나는가

삼음법도 그 소리 묻혀지지 않고
아직까지 남아와서
힘있는 소리로 돌려 토해내는데.

매양 희다 재운 소리로
기품있게 그 한풀이
풍류에 서툴지 않던 임이여

초승달 뜨면 달을 향해 큰절하고
갓 쓰고 큰절하고
초승달같이 행신하라
가르치신 임이여

달도 차면 기우는 원리
가득함을 향해 달려간 임이여.

어찌하여 임의 소리 속에는
무슨 간절한 큰 곡절이 배어 있기에
이리도 모두가 소리 속으로
스며들고 젖어들어

13) M. Eliade, *The Myth of Eternal Return*, New York: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4, p.22.

그 소리 바디 다시 피어 어우러지는가.[14]

—「보성 소리-정응민 소리비」 전문

동향 출신 정응민(1896~1964) 명창의 소리비 제막에 붙인 기념시이다. 1998년부터 보성에서는 "서편제보성소리축제"를 시작하여 2014년 현재 17회의 축제가 지속되고 있다. 판소리의 한 바디를 완성한 보성소리가 세상을 향해 마치 판소리를 열창하듯 자기를 과시하기 시작했다. "힘있는 소리로 돌려 토해내는" 그런 포효와도 같은 소리축제로 거듭난 것이다. 노정의 소리비 기념시가 고향 보성의 문화예술을 세상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고향-판소리-명창-기념시-축제로 이어지는 일련의 발전과 회귀의 과정을 통해서 문화예술의 심층에 접근하고 있다. 고향을 찾듯, 우리 문화의 정수요 또한 기층문화를 찾는 노정의 시적 지향은 이미 이때부터 확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2. 민속 소재의 시적 주제화를 통한 생명의 연출

아무래도 노정 손광은 선생의 우리 문화에 대한 지향과 취향은 그의 시집 『민속의 숨결, 신명을 풀어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양각화되고 있다.[15] "제1부 겨레의 숨결", "제2부 삶의 풍속", "제3부 영원한 빛깔!" 등으로 구성된 이 시집은 시집만이 아니라 남도의 민속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수고로움이 더해졌다. 이미지의 시대를 맞아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간 남도의 땅을 누비며 남도의 민속을 사진에 담아왔던 이종일 원장의 문화적 이력서가 사진의 형식으로 함께 실린 것이다.

14) 손광은, 『고향 앞에 서서』, 서울: 문학세계사, 1996, 90~91쪽.

15) 손광은, 『민속의 숨결, 신명을 풀어라』, 광주: 도서출판 한림, 2010.

민속	시의 제목
민속음악	곡성 죽동농악, 풍물놀이, 광산농악, 영광농악, 풍장소리, 진도 들노래, 남도 노동요, 순창 금과 들노래, 강강술래, 함평 외세 만두레, 가야금 병창
민속놀이	남사당놀이, 민속놀이
민간신앙	벌교 대포 갯제, 장성 생촌 당산제, 진도 씻김굿, 솟대, 장승, 제례, 해원굿
민속무용	한량무, 승무, 승무(僧舞), 살풀이춤, 살풀이, 바라춤
불교민속	화엄사 연등, 화순 운주사, 마이산 탑사, 태안사 연등, 원효사 연등, 중심사 연등, 약사암 연등, 쌍봉사 만등불사
세시풍속	장성 생촌 대보름, 낙안읍성 대보름, 달집태우기, 줄다리기, 고싸움놀이, 쥐불놀이, 연날리기, 복조리
통과의례	구례 운조루 혼례, 상여
민속공예	짚풀 공예, 보성 당촌 삼베, 나주 샛골나이, 영암 도기, 광주 오룡동 옹기
생업민속	가을 추수, 임자도 소금밭, 대장간
민속생활	새참, 다도, 절구질

위 표는 노정의 시집『민속의 숨결, 신명을 풀어라』에 실린 시의 제목 중에서 민속문화와 관련되는 것들을 뽑아 민속의 종류별로 정리해본 것이다. 실로 다양한 민속의 장르를 망라하고 있다. 시적 소재는 풍부한 경험은 물론 절실한 관심의 결실이다. 노정 손광은 선생이 그간 삶의 여정에서 민속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증좌가 바로 이렇듯 다양한 민속을 시화할 수 있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소재는 소재일 뿐이다. 소재가 생명을 얻는 것은 언어를 가공하는 시적 조탁을 통해서 주제로서 승화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보성군 노동면 학동마을에
재해가 없고 풍년 붙일
논빼미에 달집을 세워라
소원을 써 거는
원추형 달집을 세워라
달 떠온다. 딸 떠온다.
땅을 딛고 달 떠온다.
달을 보고 절하고 달빛 밟고
달 솟으면 불붙여라
망월이여 망월이여
달아 달아 맑게 솟아라
꽹과리, 징소리, 북을 울려라
달집 밑둥에 불을 붙이자
불타는 불기운 잡고
풍물을 울리고 온몸을 흔들흔들
팔딱 펄떡 춤을 추자
모두들 소망을 이루도록
마음 속으로 빌어라
멀리 둥글게 타는
달집 껴안고 돌면서
액맥이 연을 걸어 태워라
望月이여 望月이여
소리소리 지르며
신나게 신들린 액맥이
마음까지 함께 태우자.[16]

—「달집태우기」

고향마을의 대보름, 새로 시작된 한해의 제액초복(除厄招福)과 벽사진

16) 손광은, 29쪽.

경(辟邪進慶)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형태로, 동작으로, 소리로, 불로 표현되는 달집태우기가 한창이다. 소망이 하늘을 찌를 듯 원추형의 달집이 만들어지면, 풍물패가 한껏 기량을 자랑하며 분위기를 돋우는 사이, 동쪽 산에 달이 떠오르는 순간을 맞아 동쪽을 향해 내어놓은 달집의 문에 횃불을 놓는다. 일순 마른 짚에 옮겨붙은 불길이 하늘 높이로 치솟으며 모든 재앙을 사뤄버린다. 그리고 하늘을 향에 치솟는 불기둥은 땅에 사는 가난도 하고 서러움도 많은 사람들의 풍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신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된다.

"불은 저승으로 통하는 문"이라는 우리 속담이 있다. 죽은 사람을 위해 그가 사용했던 옷이며, 책이며, 도구들을 태워서 저승으로 보내준다. 그 저승은 신이 머무는 곳이다. 우리의 소망을 충족시켜줄 신이 있는 곳이 또는 저 세상인 것이다. 그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달집을 만들어 태운다. 달집태우기는 나쁜 액은 물리치고 좋은 일은 맞아들이는 가장 강렬한 소망희구의 세시풍속이다. 대보름에 행해지는 또 다른 형태의 소망 성취의 세시풍속이 있다. 바로 줄다리기이다.

동구 밖 당산나무 옆 골목
사래 깊은 보리밭에서
정월 대보름 신나는 보름 줄어르기
깽매기 소리소리 어우러지면
마을 사람들은 왁짜지껄
발자국 소리 깔고
암줄 숫줄 줄을 잡고
숨소리만 가득가득
쏟아져 나왔다.
저 한가롭게 기대감 벌어지는
애정 넘친 힘겨루기

구김살 없이 환하게 웃는다.
고 걸어라 고 당겨라
비녀목을 끼워라
줄을 잡아 당겨라
줄패장 함성 소리 퍽퍽하고
징 소리 북 소리 갑자기
후려치면 으샤, 으쌰,
의여 차 의여 차… 고함 소리
목이 터져라 천지를 넘어
하늘까지 터져 오르고
들석들석 암줄이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풍년이 온다.[17]

—「줄다리기」

정월 대보름은 대보름이라는 말이 뜻하는 것처럼 제일 먼저 보름달이 뜨는 날이다. 처음은 항상 의미가 있다. 더구나 처음은 다른 말로 하자면 태초의 신성성이 살아나는 순간이다. 한국의 세시풍속 중 50% 이상이 대보름에 쏠려 있다. 그만큼 민속적으로 중요한 날이다.

호남지역의 문화는 크게 동부와 서부로 나눌 수 있다. 동부지역은 비교적 산지가 발달해 있는 반면, 서부지역은 평야지대가 많다. 판소리에서 동편제와 서편제가 있듯이, 여러 가지 민속에서 역시 서부와 동부의 차이가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대보름의 세시풍속으로 놀아지는 줄다리기와 달집태우기의 분포이다.

산지가 많은 동부지역에서는 주로 대보름에 달집태우기가 놀아지는 반면에, 평야가 발달한 서부지역에서는 줄다리기가 놀아진다. 둘 다 모든 마을사람들이 참여하는 가장 큰 민속놀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며,

17) 손광은, 31쪽.

대보름에 놀아지는 세시풍속이라는 점에서 역시 공통적이다. 그러나 나무로 만드는 달집과 볏짚으로 만드는 줄이 다르다. 산지가 발달한 동부지역에서 대량을 볏짚은 얻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다.

노정 선생이 민속학자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줄다리기에 대한 해박한 민속학적 지식이 "줄다리기"라는 시에 바탕을 이루고 있다.

> 암줄 숫줄 줄을 잡고
> 숨소리만 가득가득

줄다리기는 음양의 논리를 따른다. 두 개의 줄을 만들어 하나는 암줄, 다른 하나는 숫줄이 된다. 줄다리기의 현장에서 암줄과 숫줄은 놀이도구로서의 줄이 아니라 용신으로 신체화(神體化)된다. 줄다리기는 용을 교미시키는 행위이다. 줄다리기의 현장에서 숨소리는 이불 속에서 들려오는 부부의 거친 숨소리와도 같다.

> 애정 넘친 힘겨루기
> 구김살 없이 환하게 웃는다.

성애(性愛)의 힘겨루기가 곧 줄다리기이다. 가장 즐거운 힘겨루기인 셈이다. 구김살이 있을 까닭이 없는 힘겨루기인 것이다. 가장 환하게 웃을 수 있는 힘겨루기인 셈이다. 농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다. 자연은 비로써 대지에 물을 준다. 물은 용신(龍神)이 관장한다. 용을 즐겁게 하는 것은 농사에 알맞은 비를 얻는 오래 된 민간신앙적 방법이다. 풍년을 소망하는 사회적 기대에 자연은 비로소 화답을 하며, 그것은 용신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용신에게 성애의 기쁨을 선물하는 것은 일종의 성상납과도 같은 인간의 비굴한 저자세, 바로 그 행위적 민속이다.

들석들석 암줄이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풍년이 온다.

줄다리기는 부부생활과 같다. 그러나 자식은 여자만 낳을 수 있다. 여자가 이겨야 풍년이 든다는 속신은 여자만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자연의 이치가 그렇듯, 풍년이라는 또 다른 생산 역시 여성의 원리로부터 얻어지는 은택인 것이다.

민속을 소재로 하여 주제화에 성공한 이들 시는 분명 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역동성을 함께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증폭시킨다. 달집태우기와 줄다리기는 분명 간절한 생명의 잉태는 물론 강인하고도 강력한 생명력을 확인시켜주는 놀이의 현장에서 연출된다. 어떤 경우도 이 둘을 제외하고는 마을사람들 전체가 모여 놀이를 하는 예는 없다. 그만큼 규모가 크고, 역동적이며, 간절한 것이 이들 정월 대보름 풍속이다.

달집태우기와 줄다리기는 결국 생명 잉태는 물론 생명 유지와 생명 강화의 근간 원리를 바탕에 깔고 전승되어 왔다. 그 전승의 기반이 되었던 생명감에 대한 원초적 기대와 희망을 시인을 읽어낸 것이다. 그리고 시를 통해서 그 허세와도 같은 위용을 신성한 생명가치를 추구하는 간절한 주문으로 바꾸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우주질서에 순응하는 민중 다수의 절절한 생명욕을 가시화시켜놓고 있다.

3. 의성어의 탁마를 통한 민속현장의 소리 활성

시는 일종의 종합예술이다. 시는 형상화를 통해서 언어로서 그림을 그리고, 내재율이든 외재율이든 언어를 통해서 음악을 만들어낸다. 특히 의태어를 통해서 동적 영상을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성어를 사용해서 생동감 넘치는 음악을 표출한다.

노정의 시집『민속의 숨결, 신명을 풀어라』를 몇 장만 넘기다보면 귀가 멍멍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책속에서 꽹과리소리며, 북소리며, 때로는 함성소리가 빵빠레처럼 터져나오기 때문이다.

소리는 공명(共鳴)이다. 진공 속에서는 소리가 나올 수 없다. 마치 진공상태에서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소리는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물리적 현상이다. 더구나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소리, 더구나 그것이 민중집단이 만들어내는 소리라면 더더욱 생생한 삶의 현장감을 북돋는다.

노정 손광은 선생의 시에서는 소리가 들린다. 의성어의 탁마에 능한 까닭이다. 민속 현장의 생동감 넘치는 전달을 위해 의성어보다 더 효과적인 표현방식은 없을 것이다. 소리는 움직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 소리는 죽어 있으면 나올 수 없다. 소리는 존재에 대한 확인이자 있음을 존재시키는 동력이기도 하다.

풍수(風水), 즉 바람과 물이 움직이면 바람소리와 물소리를 낸다. 바람은 하늘에서 흐르고, 물은 땅에서 흐른다. 천지(天地), 즉 하늘과 땅은 존재의 바탕이지만, 하늘이 움직이고 땅이 움직이지는 않는다. 대신 하늘에서 바람이 움직이고, 땅에서는 물이 움직인다. 정지된 천지와 움직이는 풍수가 생명의 요체이다. 마치 우리의 몸이 숨을 쉬고 피가 흘러야 살아 있는 것과 같다. 몸속에 흐르는 피는 대지 위에 흐르는 물과 같으며, 우리가 쉬는 숨은 하늘에서 불고 있는 바람과 같다. 그래서 숨을 거두거나 혈류가 멈추면 죽음을 맞는다. 병원에서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것은 호흡과 맥박이다. 생명 확인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며, 또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강력한 박동소리는 생명 활성의 표상이며, 막힘없는 숨소리 역시 생명 현상의 징표이다.

덩실 덩실 흥겨운 춤으로 노래로

그림으로 열려 있는 진도 아리랑 고향
소박한 소리 고향, 민속의 고향
응 응 응..... 콧소리가 고달픈 마음
풀어 헤치면서 내 마음 흔들어 넘긴
들노래 듣는다.
소리없이 열리길래
임 오는가 내다보니
온다는 임은 아니 오고
동남풍이 날 속였네
어기야 허여 여허라
먼데 사람은 듣기도 좋고
가까운데 사람 보기도 좋게
덩실 덩실 춤을 추며 중머리장단
덩더쿵 에헤야 어기어라
다 되었네 다 되었네
두레방 없이만 심어주소
두레방 없이만 심어주소
덩실덩실 춤을 추며
두레방 없이만 심어주소.[18]

—「진도들노래」

소리의 고향 진도에 전승되어 오고 있는 진도들소리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시상 전개의 구비마다 의성어를 장치하여 동력을 얻고 있다. 더구나 열을 바꾸어 노랫소리까지 통째로 들려주고 있다.

맺고 풀고 굴리고
소구 벅구 감기는 멋, 울긋불긋
고깔 쓰고 원무되어 감고 풀면

18) 손광은, 23쪽.

장구놀이 북놀음 나근나근
풍물굿을 친다.

굿가락 몰아가는 잦은 모리
휘모리 휩싸여 재앙은 물러가고
마을의 안녕과 가정의 평안을
얼시구 절시구 맞아들이다.

깽매 깽매 깽매깽 깨갱 깽매 깨매깽……
꽹가리 굿가락 울긋불긋 흔들흔들
휘늘어진 상쇠머리 부포는 끄떡끄떡...
정월 대보름 마을 잔치 풍물놀이
흥겨움 쌓여간다.
얼씨구 북 소리 북북 쑤시고
엉덩이 달삭 달삭
장구놀이 간드러지게
줄동말동 줄동말동
하늘 치고 북 치고
나긋나긋 어울려
풍물굿 친다.[19]
— 「광산농악」

굳이 의성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농악은 소리다. 그러나 의성어란 그냥 소리가 아니라 청각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제가 된다. 여러 시에서 농악소리는 늘 의성어의 표현기법으로 청각영상을 자극하고 있다.

하늘 치고 북 치고
나긋나긋 어울려
풍물굿 친다.

19) 손광은, 23쪽.

시의 마지막 대목에서 백미를 장식한다. 북을 치는 모습에서 “하늘 치고 북 치고” 하는 동양화의 기법을 빌었다. 힘차게 여백을 향해서 난(蘭)을 치는 사군자의 필법은 허공을 향해 뿌려지듯 한껏 타원의 멋을 살리는 북채를 닮았다. 허공인 하늘을 어떻게 치겠는가? 아무리 쳐대야 소리가 나겠는가? 서양화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여백의 잔치를 즐기는 동양화의 기법을 풍물굿 속에 담아서 화룡점정의 효과를 살리고 있다.

Ⅲ. 민속을 빌어서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 투사

고아한 서정에 익숙한 사람은 고고한 탈속의 경지에 들어 이미 털어버린 먼지처럼 세상을 바라본다. 기뻐하는 서정도 있지만, 분노하는 서정도 있게 마련이다. 죽림칠현과 같이 세상을 등진 바가 아닌 다음에는 분노의 서정이 누구에게나 있다. 분노의 서사를 우리는 노정 손광은 선생과 동창이면서 역시 함께 대학의 동일 학과에 재직했던 송기숙 선생에게서 본다. 그의 장편소설『오월의 미소』에서는 저승혼사굿이 중요한 화소로 쓰였다.

>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맺힌 것은 풀어사제라. 총각 죽은 몽달귀신이나 처녀 죽은 처녀귀신은 원귀가 되아도 젤로 험한 원귀가 된다는디. 그런 귀신들이 뭣 땀새 그렇게 험한 원귀가 되았것소. 시집 못 가고 장개 못 간 것도 한이제마는 자식이 없으면 지사를 못받아 묵은께 그것이 더 한이랍디다.[20]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죄없이 죽었던 처절한 처녀 총각의 후일담으로서, 우리 민족이 지켜왔던 사후혼사굿이라는 민속을 빌어 상황의

20) 송기숙,『오월의 미소』,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9, 229쪽.

아픔을 되새기고 있다.[21]

분노하는 서사가 아니라 분노하는 서정을 노정 손광은 선생은 아래의 "해원굿"이라는 시에 담았다.

싫건 좋건 살다보면
사는 게 인생이지만
왜 죽었어 왜 죽어
고난 속에도 살맛 있는데
내 대신 왜 죽었어
왜 죽어 원통하게 왜 죽어
가혹한 일제시대
강압에도 살았는데
아 대한민국 우리 시대
우리에게 죽은
억하고 수돗물에 빠진 넋이여
5.18민주화 때
원통하게 맞아죽은 넋이여
끈덕지게 견뎌내고
불타 죽은 넋이여
한 시대를 넘어가다가
최루탄에 맞아 죽은 넋이여
독재와 싸우다가 죽은
처녀귀신 넋이여
몽달귀신 총각귀신 넋들이여

해원굿 영가 풀이
천도제를 지내오니

21) 나경수, "문학민속학적 비평방법을 통한 송기숙 소설 읽기", 『송기숙의 소설세계』, 서울: 태학사, 2001.

한 많은 넋이여
한을 풀고 넋을 풀고
저승으로 저승으로 임하소서
맑고 향기롭게
마음 모아 영면하소서.[22]

—「해원굿」

5.18 때 죽어간 이들이 한을 풀고 넋을 풀고 영면하기를 빌고 비는 마음이야 누군들 없겠는가. 더구나 결혼도 해보지 못한 채 처녀 총각으로 죽은 이들은 가장 무서운 귀신이 된다는 속신을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처녀 총각으로 죽으면 반드시 짝을 찾아 저승혼사굿을 치러주었다.

잘못된 공권력, 더구나 불의의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5.18 영령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은 다른 형태로 체화될 수 있다. 불의에 대한 분노인 것이다. 이러한 분노는 시도 되고 소설도 되고 또 얼마든지 다른 어떤 것이 될 수 있다. 노정 선생은 핏발선 투쟁은 아니 하였지만, 안으로 삭히고 있던 분노를 시로 표출해놓고 있다. 그는 시를 통해 스스로 굿판을 열었으며, 그의 시적 굿판에 처녀귀신 총각귀신을 초대하여 사령굿을 올려주고 있다.

임자도 바다 갯물을
두레박으로 퍼올린다
물자세로 퍼올린다.

임자도 햇볕과 바람으로만
바다 갯물 수분을 증발시켜
흩날려버린 소금밭

22) 손광은, 『민속의 숨결, 신명을 풀어라』, 광주: 도서출판 한림, 2010, 123쪽.

규사질 간척지 모래밭
소금밭은 메밀꽃처럼
하얗게 피어오르고
염부들은 비지땀 흘려
소금을 긁어 모은다.

일사량 많은
넓은 갯벌 염전에서
천일염 특구 고품질 소금이다.
프랑스 게랑드
세계 명품 소금보다
친환경 소금이다.

바다 갯물이 소금되어
하얗게 하얗게 깔리면
먼 산이 가까이 보이고
소금밭에 햇무리 달꽃
곱게 곱게 떠오른다.[23]

—「임자도 소금밭」

만개한 메밀밭처럼 하얗게 널부러진 임자도 염전에서 노정은 전혀 다른 시정을 달래고 있다. 과학적으로는 프랑스 게랑드의 소금보다 훨씬 질이 좋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국세가 약한 때문인지, 홍보에 게을렀던 까닭인지 훨씬 값이 미치지 못하는 신안 염전에서 나오는 소금에 대해서 그는 또한 심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청정한 수역에서 나오는 친환경 소금을 예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지땀 흘리는 염부들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주머니를 걱정하고 있다.

23) 손광은, 117쪽.

광주의 모든 역사 품에 앉아
알고 있는 증심사
일어나 눈 뜨면 만나는 무등산 증심사
정겨운 목탁 소리, 무거운 세속 내려놓은 목탁 소리
만고풍상 역사의 구비마다 들려오는 목탁 소리
수난의 질곡 함께 이겨낸 증심사 목탁 소리
염불 소리 속에 가까이 님을 보고 듣고 만나
불처님 숨결을 따라 중생구제 소원 비나이다.

불 타는 마을 뜨겁게 이끌어 올리듯
연등 달고 내 마음에 들려오는 숨결을 따라 비나이다.
말없는 소원으로 연등을 달고 손에 연등을 들고
오백전 목탁 소리 쌓이는 걸 보면서
돌탑 탑돌이 돌아돌아 복을 비나이다.
밤낮없이 서성거린 먼지 세상
학대와 파멸의 아픔을 뒤흔들어 털어버리고
드러누운 절망과 침묵을 떠나
숨결을 눈 들어 올려보면서
꿈을 현실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광주 무등산 품안에서 민주, 인권, 평화도시
눈부신 아침마다 꽃 피기 비나이다.
문화가 살아 숨쉬는 詩 書 畵 판소리가
마음 속에 새겨나와
사람마다 마음 속에 출렁이는
기쁨을 비나이다.[24)]

—「증심사 연등」

무등산 한 자락에 앉아 있는 증심사는 오랜 동안 광주의 역사를 지켜

24) 손광은, 91쪽.

보았던 증인이다. 무등산은 일명 무덤산이라고도 불리는 한이 많은 산이다. 그가 지켜보아왔던 광주의 쓰라린 역사는 얼마나 아픈지 모른다.

무등산은 호남인의 인성을 상징하는 서사를 전설로 기억하고 있다.[25] 특히 김덕령의 비운이 함께 하고 있어 더욱 그 애절한 사연이 서럽다. 초파일을 맞아 증심사에 켜진 연등은 충신이면서도 역적으로 몰려죽은 김덕령의 부랴린 불덩이같은 눈동자인지 모른다.

> 춘산에 불이나니 못다핀 꽃 다붙는다
> 저뫼 저불은 끌 물이나 있거니와
> 이몸에 내없는 불이나니 끌물 없어 하노라

김덕령이 억울함을 호소했던 "춘산곡(春山曲)"이라는 시조이다.[26] 역사는 반복되는 것인가? 김덕령 장군의 억울함이 광주인들의 가슴 속에 전설로 깊이 생채기가 나있는데, 그 생채기를 또다시 북북 날카로운 칼날로 긁어놓았던 것이 바로 5.18이었다.

> 광주 무등산 품안에서 민주, 인권, 평화도시 : 문화가 살아 숨쉬는 詩 書 畵 판소리

시인은 시 속에서 두 가지를 병치시켜 놓고 있다. 어쩐지 어울릴 것 같지 않다. 그러나 묘한 대조 속에 묘한 동화를 얻는다. 정치와 예술의 병치를 통한 광주의 문화에 대한 옹호가 있다. 소위 광주정신이라 부르는, 그리고 그 광주정신이 발현하게 된 역사와 현대를 조화롭게 열거하여 아닌 듯싶지만, 깊게 둘을 매듭지어 묶어놓았다.

서정을 노래하는 시인이면서도 슬픈 역사를 아파하고 사회적 책무를

25) 나경수, "무등산 전설의 연구", 『한국민속학』 41집, 한국민속학회, 2005.
26) 김덕령, 『金忠壯公遺事』 / 正朝(朝鮮) / 命編 1.

지니는 지식인으로서 노정 손광은 시인이 스스로 시적 화자로 등장하고 있는 예를 위의 시들에서 보았다.

참고문헌

김덕령, 『金忠壯公遺事』 / 正朝(朝鮮) / 命編 1.

김경일,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서울: 바다출판사, 1999.

나경수, “남도의 민속사회를 통해서 본 실용과 허영의 현상적 파노라마”, 『실용과 성과주의시대의 민속학』, 한국민속학자대회논문집, 한국민속학술단체연합회, 2013.

나경수, “무등산 전설의 연구”, 『한국민속학』 41집, 한국민속학회, 2005.

나경수, “문학민속학적 비평방법을 통한 송기숙 소설 읽기”, 『송기숙의 소설세계』, 서울: 태학사, 2001.

동은지춘상선생정년퇴임기념논총발간위원회, 『남도민속학의 진전』, 서울: 태학사, 1998.

손광은, 『고향 앞에 서서』, 서울: 문학세계사, 1996.

손광은, 『파도의 말』, 서울: 현대문학사, 1972.

손광은, 『그림자의 빛깔』, 광주: 시와사람사, 2001.

손광은, 『내 마음 속에 눈부신 당신』, 광주: 도서출판 한림, 2006.

손광은, 『땅을 딛고 해가 뜬다』, 광주: 도서출판 한림, 2007.

손광은, 『민속의 숨결, 신명을 풀어라』, 광주: 도서출판 한림, 2010.

송기숙, 『오월의 미소』,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9.

M. Eliade, *The Myth of Eternal Return*, New York: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4.

Sandra Dolby Stahl, Sandra Dolby Stahl, *Literary Folkloristics and Personal Narrativ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9.

이 논문은 2014년 11월 15일에 투고되어 2014년 12월 3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14년 12월 5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국문초록>

노정 손광은의 남도기행 시집의 민속학적 의의

나 경 수

노정 손광은 선생은 평생 남도의 멋을 시로 표현해온 대표적인 시인이다. 특히 고향과 민속은 그의 시재로서 가장 널리 그리고 많이 사용되어 왔다. 2010년에 발간한『민속의 숨결, 신명을 풀어라』라는 시집은 남도의 기행을 통해 경험한 민속을 소재로 한 시집이다. 그 스스로 책의 표지에 "손광은 민속시집"이라는 부제를 달아놓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그의 민속 관련 시세계를 살펴보았다. 처음에는 제자로서 필자가 옆에서 지켜보았던 노정 선생의 삶 속에서의 민속에 대해 우선 정리하였다. 두 번째로는 노정 선생의 민속시 속에 나타나고 있는 남도의 민속에 대해 그 전승 및 연행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의미를 찾아보았다. 민속시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심층문화를 확인하고, 민속을 소재로 하여 생명을 연출하고, 또 의성어의 활용을 통해서 민속현상의 소리를 살린 시적 기교를 밝혔다. 끝으로 노정 선생의 삶과 사회적 현실 사이를 점검해보았다. 시대를 아파하는 지식인으로서의 면모를 찾아보고자 한 것이다.

주제어: 손광은, 민속, 판소리, 농악, 고향

<Abstract>

A Folklore Significance of the Book of Nojung, Son Gwang-eun's Poems, Trip to Southern Provinces

Na, Kyung-soo

Nojeong, Son Gwang-eun Son, the representative poet, expressed the taste of the southern provinces as poetry for all his life. Especially, The hometown and Folk were frequently, broadly and well used the title of his poetry. His poetry, 『Folk's breath and enjoy the exciting』 published in 2010, based on the Folk, experienced from trip to southern provinces. he took the subtitle himself as "the book of Gwang-eun Son's Folk poems" on the cover of book.

In this thesis, looked into his poetry world for folklore with dividing mainly three part. first, the writor wrote up folklore in his life beside him as his apprentice,

Second, found the meaning of southern provinces folk, shown in his folk poetry with explanation of it's transmission and Continuous action. Through folk, checked the deep culture of our people and directed life with folk, and also revealed the poetic technique, saving the phenomenon of sound with use of onomatopoeic. finally checked the difference between Nojung's life and social reality and tried to find the appearance, feeling pain of our time as an intellectual.

Key words : Son Gwang-eun, Folklore, Pansori, Folklore Music, Hometown